시조 〈삼동에 베옷 입고〉의 문헌 전승 양상 연구

김 명 순*

〈국문초록〉

시조 〈삼동에 베옷 입고〉는 30여 종의 가집에 수록되어 있고 10여 종이 넘는 문집류 문헌에 시조 원문, 한역시, 작가, 창작 배경 등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다. 오랫동안 조식의 작품으로 알려져 온 이 시조의 작가가 김응정이라는 주장이 제기었으나 일부 학술논저와 대부분의 교양도서 및 학습참고서류에서는 조식의 작품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작가 시비가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 가집류의 대다수에 이 시조의 작가가 조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일부에 양응정으로 나오지만 이를 객관적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문집류 문헌에는 吉再, 金麟厚, 李夢奎, 金應鼎, 金垥 등이 작가로 나오는데, 저마다 해당 인물의 생애와 창작 배경 등을 제시하며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혼란스럽다. 가집류의 경우는 원작자 김응정이 양응정으로 잘못 기록되고, 행적과 명성이 〈삼동에 베옷 입고〉의 내용과 배경에 가까운 조식으로 바뀌어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집류 문헌의 경우는 대상 인물의 생애와 행적, 일화와 명성, 시문 창작, 시대 배경과 역사적 사건 등이 〈삼동에 베옷 입고〉의 내용 및 배경과 쉽게 결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행적이나 일화가 전승되면서 이 시조의 작가로 알려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시조의 작가로 내세워진 인물의 가문의 후손, 향리 후배, 학파나 정파의 후진 등이 선조나 선배의 절의를 드러내기 위해 집안이나 향리, 학파 등에 전승되던 〈삼동에 베옷 입고〉 창작설을 특정 기록으로 정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관련된 문헌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이 시조는 김응정이 명종의 승하시에 지었다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삼동에 베옷 입고〉의 원문 표기, 창작 배경, 어휘 풀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시조 〈삼동에 베옷 입고〉와 관련된

* 대구한의대

다양한 문헌자료의 전승은 해당 시조 뿐 아니라 시조문학의 수용과 전승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시조, 삼동에 베옷 입고, 문헌 정숭, 김응정, 해암집.

1. 서론

시조 〈삼동에 베옷 입고〉[1]는 30여 종의 가집에 수록되어 있고 10여 종의 한문문헌에도 시조 원문이나 한역시 형태로 실려 있다. 가객을 중심으로 전승된 가집 뿐 아니라 사대부들의 문집을 비롯한 한문문헌으로도 다양하게 전승되어 온 것이다. 〈삼동에 베옷 입고〉는 그 만큼 사대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조 작품이었다.

이 작품의 문헌전승에서 주된 쟁점은 작가 변증 문제였다. 가집류의 경우에는 이 시조의 작가가 曺植(1501-1572)으로 표기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에는 梁應鼎(1519-1581)으로 나타나며 일부에는 작가를 기록하지 않았다. 반면 문집류 문헌에는 이 작품의 작가가 吉再(1353-1419), 金麟厚(1510-1560), 金應鼎(1527-1620), 李夢奎(1510-1563), 金坽(1577-1641)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삼동에 베옷 입고〉는 초기의 시조관련 논저에서 대체로 가집의 표기대로 조식의 시조로 다루어졌고, 교과서에도 조식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왔으나 김응정설이 강하게 제기되자 작품 자체가 아예 교과서에서 빠져버리고 말았다. 진동혁은 관련 문헌을 근거로 김응정설을 주장하였

1) 시조 "삼동에 뵈옷 닙고 암혈에 눈비 마자…"는 진동혁, 이동영, 김일근 등의 논의에서 〈西山日落歌〉라고 칭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삼동에 베옷 입고〉라 부르기로 한다.

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고등국어 I 』(1983)에 실려 있던 〈삼동에 베옷 입고〉가 작자 시비가 논의되는 작품은 국정교과서에 실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

진동혁의 논문이 발표된 뒤 대체로 김응정 창작설이 통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동영은, 조식은 그의 교유와 출처를 배경으로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자로 잘못 끼어들었을 뿐 시조를 지은 바가 없다고 하였다. 김일근은 〈두류산가〉가 조식의 작품임을 주장하면서, 〈삼동에 베옷 입고〉에 대해서는 김응정설을 수용하였다. 박을수는 懈菴集本을 자료집의 대본으로 내세우고 작가를 김응정으로 표기하였다.[3] 그러나 일부 논저에서는 작가를 조식으로 표기하거나 해암집 기록과 김응정설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김응정으로 확정하지 않고 있다.[4] 특히 현행 국어교과서에는 작품이 실려 있지 않으나 참고서, 문제집, 수업자료 등에서 이 시조의 작가를 조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출판된 대부분의 교양도서나 인터넷 정보검색란에서도 조식으로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삼동에 베옷 입고〉와 관련된 기록이 들어 있는 문집류 문헌자료로 김응정의『해암집』외에도 다수가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가집류는 물론이고 문집류 문헌자료를 망라하여 작품과 작가 표기의 전승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문헌에 나타나는

---

2) 秦東赫,「金應鼎時調硏究」,『국어국문학』90, 국어국문학회, 1983;「金懈菴歌曲集序等에 관하여」,『건국어문학』9·10,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85;「金應鼎論」,『고시조작가론』, 한국시조학회, 1986.

3) 李東英,「曺南冥 時調의 作者存疑」,『태야최동원선생화갑기념국문학논총』, 삼영사, 1983. 김일근,「조남명의 국문시가에 대한 심층연구」,『남명학연구논총』7, 남명학연구원, 1999. 박을수,『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1, 587면.

4) 심재완은 작가가 김응정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고(심재완,『정본시조대전』, 일조각, 1984, 379-380면), 김대행은 작가를 조식으로 표기하고 〈해설〉에서 '김응정의 작품으로 기록한 문헌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고 보충하였다.(김대행,『시조 I 』, 한국고전문학전집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108면.)

작품 원문 및 작가 표기와 창작 배경을 비롯한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작가 표기의 실상과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2. 가집류 문헌

시조 〈삼동에 베옷 입고〉가 실려 있는 가집류는 『靑丘永言』(珍本)을 비롯해서 30여 종에 이른다.[5)]

嚴冬에 뵈옷 닙고 岩穴에 눈비 마자
구름 씬 볏뉘를 뻔 적이 업건마는
西山에 힉지다 ᄒᆞ니 눈물겨워 ᄒᆞ노라 (청구영언진본 91)

三冬에 뵈옷 닙고 岩穴에 눈비 마자
구름 씬 볏 뉘도 쐰적이 업건마는
西山에 힉지다 하니 눈물겨워 ᄒᆞ노라 (병와가곡집 13)

三冬에 뵈옷 닙고 岩穴에 눈비 마ᄌᆞ
구름 낀 볏 뉘도 쏘인 젹이 업겐마는
西山에 힉지다 하니 못ᄂᆡ 슬허 하노라 (흥비부 3)

위와 같이 가집류에 실려 있는 〈삼동에 베옷 입고〉의 원문표기는 의미가 달라질 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다. '嚴冬에 뵈옷 닙고', '三冬에 뵈옷 닙고'와 같이 초장 머리의 어휘가 다른 경우와 '눈물겨워 ᄒᆞ노라'와 '못ᄂᆡ 슬허 하노라'처럼 종장 후구의 표현이 다른 자료가 있

5) 심재완의 『교본역대시조전서』(세종문화사, 1972, 529-530면)에는 가집 29종에 수록된 〈삼동에 베옷 입고〉의 원문과 작가 표기가 대비되어 있다. 『詩歌』(박씨본)와 『靑丘永言』(홍씨본)에는 같은 작품이 중복되어 실려 있는데 작가 표기가 다르다.

다. '嚴冬에'는 청구영언진본에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모두 '三冬에'로 나온다. '못닉 슬허 하노라'는 『興比賦』에만 보이고 나머지 가집에는 모두 '눈물겨워 ᄒᆞ노라'로 나와 있다.[6]

가집류에는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가가 조식 혹은 양응정으로 표기되어 있다. 『甁窩歌曲集』『海東歌謠』(일석본), 『海東歌謠』(주씨본), 『詩歌』(박씨본)51번, 『靑丘永言』(홍씨본)61번, 『東國歌辭』『靑丘永言』(연민본), 『靑丘永言』(육당본), 『東歌選』(도남본), 『歌曲源流』 11종, 『協律大成』『花源樂譜』 등 총 22종에는 조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중 해동가요는 작품이 작가위주로 배열되어 있고 작가 표기의식이 뚜렷한 가집이며, 병와가곡집은 청구영언진본 및 해동가요와 영향관계나 계열 경향이 밀접한 가집이다.[7] 그런데 가곡원류계열은 거의 같은 내용을 전사한 것들이며 특히 작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곡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뚜렷한 특징이다.[8] 그리고 협률대성, 화원악보 등은 가곡원류계열에 가깝고, 청구영언(홍씨본)의 작가표시도 가곡원류계에 가깝다.[9] 그러므로 조식으로 표기된 가집이 22종이라는 것이 숫자 그대로의 객관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청구영언』(진본), 『靑丘永言』(가람본), 『靑丘詠永』(가람본) 등에는 작가가 양응정으로 내세워져 있다. 이중 청구영언(진본)은 〈삼동에 베옷 입고〉가 실려 있는 가집류 중 연대가 가장 앞선다. 또 편찬자와 편찬연대가 확실하며 작가위주로 작품을 배열하면서 작가 규정을

---

6) 정병욱의 『시조문학사전』(신구문화사, 1966)에는 진본청구영언본, 심재완의 『교본역대시조전서』와 『정본시조대전』, 김대행의 『시조 I 』에는 병와가곡집본이 대본으로 내세워져 있다. 한편 박을수의 『한국시조대사전』에는 김응정의 해암문집본이 대본으로 나와 있다.

7)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10-21면.

8) 심재완, 앞의 책, 48면.

9) 심재완, 앞의 책, 23면.

신중히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10] 그러므로 편집체재와 편찬의도 등을 고려할 때 가집의 편찬자는 이 시조의 작가를 양응정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靑丘永言(가람본)은 작가표시가 청구영언 진본과 유사하고 靑丘詠永(가람본)도 청진과 관련이 있는 가집이다.[11] 김응정의 작품으로 표기된 〈太平 天地間에 簞瓢를 두러 메고〉의[12] 작가가 청구영언진본, 병와가곡집 등 9종에는 양응정으로, 해동가요(일석본) 등 12종에는 김응정으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청구영언(진본), 靑丘永言(가람본), 靑丘詠永(가람본)에는 〈삼동에 베옷 입고〉의 경우처럼 모두 '松川梁應鼎'이라 표기하고 있다. 한편 청구영언(홍씨본)에는 작가를 '김응정(閒散人)'으로 표기한 반면 청구영언(육당본)에는 김응정이라 하고 협주에는 '號松川 字公燮 宣祖朝 冠湖堂大成'이라 하여 양응정에 해당하는 주석을 달고 있다. 김응정을 양응정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나머지 6종에는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가가 밝혀져 있지 않았는데, 『古今歌曲』과 『槿花樂府』는 내용별로 배열되어 있고 『歌譜』(김익환본)와 『홍비부』는 곡조별로 배열되어 있어 작가표기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가곡원류계에 가까운 靑丘永言(홍씨본)[4번]도 작가표기의식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작품을 같은 책(청구영언 홍씨본) 61번에서는 작가를 조식으로 표시하고 있다.[13] 그리고 『詩歌』(박씨본)는 〈目錄〉에 신분별, 연대별 작가의 작품수를 밝히고, 〈列聖朝臣〉항에서 麗末에서 景宗朝에 이르는 신분별 작가 수까지 그 計數를 기록하고 있으며, 작가를 작품 앞에 내세우고 작가표시는 "朴萬戶仁老 四

10) 심재완, 앞의 책, 12-15면.
11) 심재완, 앞의 책, 24-26면.
12) "太平 天地間에 簞瓢를 두러 메고, 두 ᄉᆞ매 느리혀고 우즑 우즑 ᄒᆞᄂᆞᆫ ᄯᅳᆺ은, 人世에 걸닌 일 업스니 그를 조하 ᄒᆞ노라.(심재완 3071, 박을수 4345)
13)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23면.

章"과 같이 관직을 앞세워 기술하되 작가마다 경력을 夾註로 붙이는 등 작가표시가 매우 체계적이다. 작가에 대한 주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14]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편찬자는 분명히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가를 무명씨로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시가』(박씨본)에는 같은 작품(가번 51)의 작가를 조식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볼 때 가집류의 작가표기 양상을 통해 가집의 작가표기의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문집류 문헌

〈삼동에 베옷 입고〉의 문헌전승과 관련된 문집류 문헌은 김응정과 관련된 『懈菴集』『梅壑先生遺稿』 등, 이몽규와 관련된 『童觀識錄』『天休堂行蹟』 등, 김령과 관련된 『霞溪集』『溪巖集』 등이 있으며, 그밖에 한역시가 수록된 『芝嶺錄』『桐巢遺稿』『雷淵集』『樂府』(고대본) 등이 있다.

1) 김응정의 『해암집』 등

〈삼동에 베옷 입고〉를 김응정이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으로 『해암집』, 『敷言一部』에 들어 있는 〈金懈菴歌曲集序〉 등, 徐鳳齡(1622-1687)의 『梅壑先生遺稿』 등이 있다. 일찍이 진동혁이 『해암집』에 있는 시조와 「김해암가곡집서」 등의 기록을 들어 김응정이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가임을 논증한 바 있다.[15]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

14) 심재완, 앞의 책, 19-21면.
15) 주2)의 논문.

이 대부분의 교양도서와 특히 학습참고서류에는 작가가 여전히 조식으로 통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진동혁의 논의를 수용하고 〈삼동에 베옷 입고〉의 김응정 작자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보충하여 정리해보기로 한다.

(1) 오이건의 「김해암가곡집서」 등

『부언일부』라는 책에는 吳以健(1609-1690)의 〈김해암가곡집서〉와 吳喜謙(1687-?)의 〈題懈庵歌曲集後〉, 崔井翊(생몰년미상)의 〈題先生集後〉 등이 실려 있다. 이 글들이 각각 1690년, 1707년, 1709년에 나온 것이니 김응정 사후 70년 만에 해암가곡집이 엮어졌고, 여기에 〈삼동에 베옷 입고〉가 포함되어 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6] 오이건과 오희겸은 강진에 살았던 사실이 확인되고, 최정익도 그 행적이 자세하지 않으나 「제선생집후」의 내용을 통하여 강진 인근에 거주하며 김응정의 5대손인 金爾瑚와 교유하였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암가곡집』을 편찬하고 서문과 후서를 쓴 인물들은 강진에 살며 김응정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후손과 직접 교유하였던 향촌 사족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명종이 승하하자 선생이 슬퍼하며 삼년복을 입으니 선조가 그 의로운 행실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경릉참봉으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자취를 감추고

16) 최정익의 〈제선생집후〉는 그 내용이 오이건과 오희겸의 글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가곡에 대해 언급한 대목은 거의 유사하다. 오희겸이 그 가곡의 내용을 두고 "어버이를 사모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생각과 시대를 바로잡고 옛것을 이끄는 뜻이 곡조 속에 넘친다.(慕親愛君之念, 匡時挽古之志, 溢於曲裡.)"고 하고, 최정익은 그 가곡을 완미해 보니 "어버이를 사모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 깊은 뜻이 있고 간혹 세상을 민망히 여기고 풍속을 오만하게 아는 뜻이 있다(余翫其歌曲, 慕親愛君之誠, 藹於言表, 又間有憫世傲俗之意.)"고 하였다. 이를 보면 해암가곡집을 해암집으로 부르기도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숨어살며 생을 마치려 하였다. 선조가 돌아가자 공은 나이가 80이 되었는데도 슬퍼하기를 그치지 않고 또 삼년복을 입었으니 지금 '西山日落之曲'을 보면 그 임금을 향한 충정을 짐작할 수 있다.(중략) 선생이 지은 가곡이 자못 많았는데 망실하여 백에 하나도 보존된 것이 없다. 공의 후손 이호가 나머지를 수습하여 나에게 바로잡아주도록 부탁하였다. 내가 그 청함을 중하게 여기고 또 선생을 추모해서 약간을 수집하여 기록하고 손수 베껴 해암가곡집이라고 이름하고 말미에 두어 곡 서툰 노래를 지어 사모하는 마음을 붙인다.[17]

김응정이 '西山日落之曲'을 지었으며 오이건이 김응정의 시조들을 모아서 해암가곡집을 엮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응정의 후손 김이호가 남아 있는 김응정의 시조를 수습하여 오이건에게 부탁해서 오이건이 직접 가곡집을 편찬한 것이다. 해암가곡집은 청구영언을 비롯한 가집류보다 연대가 앞서고, 편찬자가 직접 김응정의 시조를 모아서 엮었다는 데서 자료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오희겸은 오이건이 해암가곡집을 엮은 지 10여 년 뒤에 이를 열람하였으며, 최정익도 직접 김이호의 집을 방문하여 김응정의 자취와 업적을 살펴보았다고 하였다.[18]

(2) 『해암집』 '가곡'조

오이건의 〈김해암가곡집서〉 등에는 '西山日落之曲'이라는 말과 그 대략적 내용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삼동에 베옷 입고〉를 지칭한다

17) 吳以健, 「金懈庵歌曲集序」, "明廟昇遐, 先生垂哀不已, 服喪三年, 宣廟嘉其行義, 特以敬陵參奉徵之, 不起. 屛迹隱遯, 若將終身. 宣廟晏駕, 公年已八十矣, 哀臨不撤, 亦服三年. 今見西山日落之曲, 亦可想其葵衷也.(중략) 先生所詠歌曲, 頗多放失, 百無一存. 公之孫爾瑚收拾餘, 囑余攷正. 余旣重其請, 且慕先生, 裒錄如干, 親自繕寫, 目爲懈庵歌曲集, 尾成數曲拙歌, 以寓景仰之懷云."(진동혁 논문에서 재인용)

18) 崔井翊, 〈제선생집후〉, 앞의 책, 같은 곳, "今年春適以事歷過金秀士爾瑚之家, 爾瑚乃其雲仍, 卽求其實跡而目焉."

는 확증은 없다. 그러나 김응정의 『해암집』에 〈삼동에 베옷 입고〉의 원문이 '聞明廟昇遐作'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어 이 작품이 바로 「김해암가곡집서」의 '서산일락지곡'임이 분명해진다.

> 三冬애 뵈옷 닙고 巖穴의 눈비 마자
> 굴움 씬 볏뉘랄 쐰 젹은 업건마는
> 西山에 힉 지다 하니 그를 셜워 ᄒᆞ노라[19]

위의 작품은 다른 시조 7수와 함께 '歌曲'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실려 있다. 종장이 가집류에는 『흥비부』에만 '못ᄂᆡ 슬허ᄒᆞ노라'이고 나머지는 모두 '눈물겨워 ᄒᆞ노라'인데, 여기에는 '그를 셜워 ᄒᆞ노라'로 되어 있어 주목된다. 『해암집』은 『해암가곡집』이 나온 지 83년만인 1773년 무렵에 편찬되고 1905년에 중간되었다. 연대로 보면 청구영언 등보다 후대이나, 실제 해암집 가곡조에 실린 시조는 「김해암가곡집」에 실린 자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20]

(3) 『해암집』 서문 등

『해암집』에는 서문을 비롯하여 〈삼동에 베옷 입고〉와 관련된 기록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강진 출신으로 世子翊衛司副率을 지낸 李毅敬(1704-1778)은 김응정의 5대손 김이호가 家乘에 빠진 언행을 수습하고 6대손 金命彦이 더욱 널리 수집하여 자기에게 行狀을 부탁했다고 하고, "어려서부터 음률에 밝아서 느낌이 있으면 노랫말을 지어 흉중의 뜻을 펼쳐냈으니 '西山日落歌'와 같은 5, 6장의 노래가 아직 세상에 전해오고

---

19) 金應鼎, 『懈庵集』 권1, 歌曲, 〈聞明廟昇遐作〉

20) 『해암집』'가곡'조에 '뵈옷'과 '젹은'의 'ㅇ'이 'ㅿ'처럼 표기되어 있고 박을수의 『한국시조문학사전』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나 중세국어의 'ㅿ'용법과 상관없으며 'ㅇ'으로 보아야 한다.

있다'고 하였다.[21] 權震應은 1773년에 쓴 序에서 귀양에서 풀려 섬에서 나와 돌아올 때 강진에 들러 후손 김명언에게 김응정의 노래와 시와 사적을 얻어보았다고 하고, "충군애친의 정성을 때때로 노래로 나타냈으니 명종이 세상을 떠나자 '西山落日之曲'을 지었다."고 하였다.[22] 1777년에 문과에 급제, 병조참의를 지낸 강진 출신 尹孝寬는 〈書懈庵行狀後〉에서 '西山落日之歌'와 '洛東泛舟之詩'가 지금까지 전송되고 있다고 하였다.[23] 李時憲이 1858년에 지은 〈墓碣陰記〉에도 '西山白雪之曲' '洛江蒼梧之詩'는 忠孝之氣가 충만하고 노랫말과 곡조가 인구에 회자된다고 하였다.[24] 강진 현감 尹得徵은 〈龍湖祠奉安祭文〉에서 '西山一曲이 천년 후까지 전하리라'고 노래하였다.[25] 강진 진사 李夢梯(1678-1756), 靈巖生員 尹恒緖, 長興 進士 任命玄, 海南進士 任翰遠 등 鄕儒 97명이 올린 〈道儒上方伯書〉에는 1567년 명종이 세상을 떠나자 처사가 '西山日落歌'를 지어 슬퍼하였다고 하였다.[26] 해암집에 인용된 康津邑誌에는 김응정이 명종과 선조 두 임금이 승하할 때 모두 삼년복을 입었으며 '西山日落之曲'을 지었다고 하고, 또 노래를 잘하여 그의 가곡집이 고장에 유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는 1872년경에 湖南邑誌 수록된 『康津縣營邑

---

21) 金應鼎, 『懈菴集』 부록, 〈行狀〉(李毅敬 撰), "自少曉音律, 遇境輒作爲歌詞, 發揚其胸中之奇, 如西山日落之歌五六章, 尙流傳於世."

22) 權震應, 〈해암집서〉, 『懈菴集』, "昨年夏, 余自海島蒙恩而歸, 行過康津, 康津人往往誦公之德不衰. 又因其孫命彦得見公歌詩事蹟, 始信前知之非誤." "其忠君愛親之誠有時發於歌咏, 明廟昇遐, 作西山落日之曲."

23) 尹孝寬, 〈書懈庵行狀後〉, "西山落日之歌, 洛東泛舟之詩, 至今誦之, 猶使人烈烈激慨也." '洛東泛舟之詩'는 『懈菴集』에 실려 있는 〈過洛東江〉을 가리킨다.

24) "西山白雪之曲, 洛江蒼梧之詩, 忠孝之氣藹然, 詞調至今膾炙人口." '西山白雪之曲'은 〈삼동에 베옷 입고〉와 해암집 가곡조의 시조 〈掃墳雪〉을 가리킨다.

25) 尹得徵, 〈龍湖祠奉安祭文〉, 『해암집』 부록, "西山一曲, 千載猶傳." 龍湖祠는 1680년 건립했다가 허물어버리라는 명이 내린 바 있으니 尹得徵이 奉安祭文을 지은 연대를 짐작할 수 있다.

26) "嘉靖丁卯, 臣民無祿, 明廟賓天, 處士作西山日落之歌以哀之."

鎭誌』의 기록과 동일하다.[27]

(4) 〈삼동에 베옷 입고〉 관련 한시

『해암집』 부록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김응정을 추모하며 〈삼동에 베옷 입고〉를 두고 지은 한시가 다수 실려 있다.

三冬無褐且無衣　岩穴多霑雨雪霏
雲掩寒暉雖未見　西山日落淚堪揮

巖穴三冬一布衣　寒天雨雪亂霏霏
漏雲殘照雖未曝　日落西山淚堪揮

處士平生一褐衣　惟將巖壑樂烟霏
自由陽春寡和曲　希音長伴短笻揮

서봉령이 〈삼동에 베옷 입고〉를 7언절구로 한역하고 윤항서와 申命圭(1618-1688)가 서봉령의 작품에 차운한 것들이다.[28] 앞의 두 작품은 〈삼동에 베옷 입고〉의 의미와 가사를 충실하게 직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학유고』를 남긴 서봉령은 김응정과 가까운 세대로 호남의 처사 문인이고 윤항서(생몰년 미상)는 강진 진사 李夢梯(1678-1756)와 함께 〈도유상방백서〉를 올린 영암의 생원이다.[29] 신명규는 1662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執義 등을 역임하고 전라도 암행어사로 파견된 바 있으며,

---

27) 『康津縣營邑鎭誌』(한국학문헌연구소편, 한국지리지총서4, 1986), "明宣二廟陟方時, 皆服喪三年, 有西山日落之曲(中略), 又善作歌, 隨感率口, 無不淸絶. 有歌曲集, 行于鄕. 鄕人至今稱爲金處士."

28) 서봉령, 〈橄栝懈菴金處士聞明廟昇遐悲歌一闋…〉 제1수, 윤항서, 〈次徐梅壑橄栝歌曲韻〉 제1수, 申命圭, 〈次梅壑韻悼懈菴〉 제1수.

29) 康津 進士 李夢梯(1678-1756)도 "서산에 해지다는 노래 한 곡조에, 이 노인의 마음이 만년토록 밝으리라."고 노래하였다. 李夢梯, 〈追懷先生韻〉, "日落西山歌一曲, 此翁心事萬年明"

1673년 강진 등지로 유배되었다가 1683년에 풀려났는데 이 때 서봉령의 작품에 차운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지에서 김응정의 행적과 명성을 접하고 그의 덕망과 시조의 작품세계에 감동하여 이를 한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서봉령의 『매학선생유고』

『해암문집』에 수록된 서봉령의 〈삼동에 베옷 입고〉 관련 작품은 그의 문집인 『매학선생유고』에도 실려 있다. 『매학선생유고』는 〈삼동에 베옷 입고〉의 김응정 작자설을 입증할 또 하나의 유력한 자료라 할 수 있다. 1916년에 간행된 『매학선생유고』는 본집 15권과 연보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래 유고가 30여 책이 있었다고 하나 유실되고 겨우 6, 7책이 전해졌다고 한다. 문집의 從師錄에 金集, 尹舜擧, 安邦俊, 尹文擧, 尹宣擧, 兪棨, 權諰, 尹元擧, 宋浚吉, 李惟泰 등의 이름이 보인다. 특히 안방준(1573-1654)의 문하에서 스승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는데 여러 차례 스승의 사직소를 대신 지었고 스승의 〈遺事〉 등을 집필하였다. 스승이 죽은 뒤에는 스승의 명에 따라 윤선거의 문하에서 수업했다. 閔鼎重, 金壽恒, 李敏敍 등 당대 명유들과 왕래한 글들이 많은데, 민정중은 사람들에게 매번 '호남에 梅壑老兄 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다. 서봉령도 김응정처럼 호남의 처사문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30]

三冬無褐且無衣　삼동에 갖옷도 없고 베옷도 없이
岩穴多霑雨雪霏　바위굴에서 비에 젖고 눈보라 맞았네
雲掩寒暉雖未見　구름 가린 차가운 햇볕도 보지 못했건만
西山日落淚堪揮　서산에 해 떨어지니 눈물이 흐르도다

30) 앞서 언급했던 尹孝寬의 〈書懈庵行狀後〉에는 서봉령을 '徵士'라 호칭하고 있다. "播諸歌詩, 梅壑徐徵士檃栝之, 桐江李老長行狀之, 其他遠近先輩或序或詩."

窮廬黃齕凍兼饑　궁핍한 오두막에 누른 얼굴 굶주림에 떨며
巖穴平生不見暉　암혈에 평생토록 햇볕을 보지 못하였네
葵藿物性猶未奪　해바라기의 물성도 빼앗을 수 없거늘
悲歌激烈淚堪揮　슬픈 노래에 격렬히 감개하여 눈물을 흘리네[31]

〈삼동에 베옷 입고〉에 화작한 작품이다. 제1수는 시조를 충실히 한역하고, 나머지는 歌意를 바탕으로 작자의 감회와 김응정에 대한 추모의 정을 담아서 한시화하였다. 이들 漢譯詩와 和作詩는 시조에 한시로 화작하여 시조 작가의 정신세계에 동참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암 김처사가 명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지은 비가 한 수를 고쳐서 두보의 시구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 기울어지나니, 사물의 본성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법이다.'의 여운에 이어 화답하여 임금을 잊지 않고 나라를 걱정하는 숨은 덕망을 드러낸다.

처사의 이름은 응정이고 자는 모이며 강진 병영 향교동에 대대로 거주하였다. 처사는 삭둔의 선영 곁에 집을 짓고 숨어 나오지 않았는데 송강상공이 호남 관찰사로 있을 때 천거하여 정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명종이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노래를 지어 애도하였다. 노래가 비록 짧은 단가 한편에 지나지 않지만 그 격렬한 감정과 슬픈 심정은 일창삼탄의 여운이 있어 세상의 지사유인으로 하여금 눈물을 닦으며 읊조리며 천성에 감발하여 선한 도리를 생각하게 하여 삼강오륜의 중함을 더하게 하니 참으로 이소의 애원보다 못하지 않다. 매번 한 번 읊고 탄식하며 세대를 넘어 상감하는 의리를 이기지 못하니 곧 내가 비록 늙고 쇠약하지만 아파서 신음하는 사이에 더욱 둔옹(朱熹)이 초사에 주석한 장한 마음에 감발한다. 그 말을 한시로 고쳐서 작은 정성을 다하여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의리가 실로 망극하여 숨고 드러나는 바에 따라 넉넉하고 인색함이 없는 이치를 보일뿐, 그 말과 음조가 서투르고 어눌하여 풍아의 성률에 맞추기에 부족한 것은 걱정할 겨를이 없도다. 아아. 슬프다.[32]

---

31) 서봉령, 〈檻栝懈菴金處士聞明朝昇遐悲歌一闋…〉 제1・3수, 『梅壑先生遺稿』 권1.
32) 서봉령, 〈又檻栝懈菴金處士聞明廟昇遐悲歌一闋, 以續和杜老葵藿傾太陽物性固莫奪之遺音餘韻, 以闡揚畝忠藎憂之潛德幽光竝序〉, "處士名應井字某, 世居康津

위에 예시된 작품의 시제와 서문이다. 김응정이 명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지은 시조 〈삼동에 베옷 입고〉를 한시화하였다. 창작방법과, 김응정의 숨은 덕망을 드러내기 위해 한시화하였다는 창작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檻栝'이라 한 것은 우리말 노래인 시조를 한시 형식으로 옮기는 일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檻栝鳳鳴一闋〉 2수도 역시 김응정의 시조를 한시로 옮긴 것들이다. 그가 제목에서 언급한 두보의 시구는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에 나오는 구절을 말하는데, 임금을 향한 충성과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소인배들의 행태, 타협하지 않고 티끌 속에 묻혀 있는 처지와 절개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노래한 작품이다.[33] 또 서문에서 그 격렬한 감정이 〈離騷〉에 못지않다고 하고, 주희가 초사를 풀이한 일에 감발하여 시조 〈삼동에 베옷 입고〉를 한시화 한다고 하였다.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품세계를 초사와 두보의 작품에 견줄 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삼동에 베옷 입고〉의 김응정 작자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보았다. 이들 방증 자료들은 자료의 성격과 집필자의 신분, 생애, 행적, 연대 등에서 자료적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 현지에서 김응정의 후손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인한 인물들이다. 이제 〈삼동에 베옷 입고〉의 김응정 작자설은 정설로 공인되어야 할 것이다.

之兵營鄕校洞, 而處士結廬於朔遜先塋之側, 隱淪不出. 松江相公按節湖中, 薦除靖陵參奉不起, 而聞明廟昇遐, 作歌哀之. 歌雖寂寥短闋, 其激烈惻怛, 有一唱三嘆之韻, 而使世之志士幽人, 抆淚謳吟, 有感發天性 思彝之善, 以增夫三綱五常之重, 正不下於離騷之哀怨. 每一詠嘆, 窃不勝曠世相感之義. 卽余雖病且衰, 而疾痛呻吟之暇, 尤感發於遜翁註楚騷之壯心. 謹檻栝其語, 以昭示 螻蟻犬馬憂愛之義. 實極天罔墜, 而不以幽顯而有所豐嗇之理. 而其辭調拙訥, 不足以協諸風雅之聲律, 則有不暇恤. 嗚呼, 噫噫!"

33) 杜甫,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杜少陵詩集』 권3.

2) 이가순의 『하계집』 등

李家淳(1768-1844)의 『霞溪集』에 실려 있는 〈溪巖金先生請諡疏〉에는 김령이 〈삼동에 베옷 입고〉를 지은 것으로 나온다.

>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조정의 안팎에서 모두들 경축하는데, 김령은 탄식하며 말하기를 '과부는 지아비가 의롭지 못하다고 하여 수절하는 바를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 하고 여러 날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죽만 한 그릇 들었다. 우리말 노래 한 곡조를 지었다.
>
> 三冬에 베옷 입고 巖穴에서 눈비에 젖으며
> 구름 낀 하늘 아래 몇 년이나 해를 보지 못했건만
> 서산에 해 떨어졌다 하니, 이를 슬퍼하노라[34]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김령이 불사이군의 절의를 지키며 〈삼동에 베옷 입고〉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지은 이가순은 본관이 眞寶이고 거주지는 禮安이며 李滉의 9세손이다. 1813년 증광시에 급제하여 侍講院說書, 司諫院正言, 弘文館修撰, 司憲府掌令, 應敎, 校理 등을 역임하였다. 문집으로 『霞溪集』 12권이 있다.

김령은 본관이 光山이고 禮安 출신으로 현감 富倫의 아들이다. 광해조 때 증광시에 급제하고 承文院注書에 제수되었는데, 국정의 혼란과 陰臣의 秉權을 보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귀향하여 두문불출하였다. 인조반정 때 '濁世獨淸', '獨立頹波中'이라 하여 품계를 뛰어 成均館直講, 司憲府持平에 배수되었으나 중도에 병을 핑계 삼아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이 때부터 10여 년 동안 直講, 正郎, 獻納, 掌令, 執義, 輔德 등에 몇 번씩 제수되고 司諫에 7번이나 제수되었으나

---

34) 李家淳, 〈溪巖金先生請諡疏〉, 『霞溪集』 권5, "及仁廟改玉, 中外相慶, 令自歎曰: '嫠婦不可以夫之不義而改其所守'屢日不食, 只一進糜淳, 有諺歌詞一章曰: 三冬衣布衣, 巖穴霑雨雪, 密雲天之下, 幾年不見日. 雖然西山景云落, 是以心悲絶."

모두 병을 들어 부임하지 않았다. 특히 20여 년 동안 수족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다고 하고서 문밖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嶺南第一人'이라고 일컬어졌으며 숙종 15년 都承旨에 추증되었다.[35] 이 같은 김령의 행적은 지조와 충절의 표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특별한 행적이 〈삼동에 베옷 입고〉의 내용 및 배경과 결부되어 마침내 김령이 이 시조를 지었다는 주장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령이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가로 주장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西山'에의 비유이다. 현감 黃時榦은 輓詞에서 "동해에 의사 없지 않으니 서산의 백이와 같도다."라고 노래하며 김령의 행적을 백이숙제의 서산(수양산) 고사에 견주어 기리고 있다.[36] 柳成龍의 손자 柳元之(1598-1674)는 〈與宣城士林書〉에서 김령의 易東書院祔享을 촉구하며 김령의 사적이 백이숙제의 '西山節義'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37] 權愈와 李光庭 그리고 李世澤 등은 서문과 발문에서 김령이 약관에 벗에게 지어준 시의 '時乎苟不可, 同臥西山坡.'라는 시구에 出處之分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登樓詩에 '特立獨行'의 기상이 있었으며, '嫠婦之節이 西山之風에 부럽지 않다'고 한 말 등을 인용하며 김령의 절의를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西山坡', '西山之風', '特立獨行' 등은 백이숙제의 절의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나아가 김령을 직접 백이에 비유하는 구절도 흔히 발견된다. 권유의

---

35) 김령의 생애는 權愈(1616-1704)과 李光庭(1674-1756)이 지은 行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權愈, 行狀, 溪巖先生文集, 卷6. 부록, 행장(權愈・李光庭撰)

36) 『溪巖先生文集』 권6, 附錄, 挽詞(縣監黃時榦作), "卓彼先生地, 欽斯君子人. 道肥多病日, 節苦閉門辰. 東海非無士, 西山却有倫. 淸風元不死, 浮世謾傷神. 力爲君王固首陽, 曾於靑史此詩傷. 人亡今日猶堪誦, 留取聲名萬古香."

37) 柳元之, 〈與宣城士林書〉, 『溪巖先生文集』 권6, 附錄, "溪巖金先生, 早承家庭淵源之學, 見得旣高, 樹立大節, 不欲使世人知之, 當日之事, 比之西山, 尤有難者, 而尙欠俎豆之典, 實吾黨之所羞. 幸願僉尊速定大論, 祔享于易東書院, 以爲後生之矜式云云."

행장에 鄭蘊(1569-1641)이 "지금 임금에게 공이 있는 것은 무왕에게 백이숙제가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는 기록이 보이며[38] 이광정은 "선생의 뜻은 백이의 마음이지만, 선생의 시대는 백이의 시대와 같지 않고, 자처한 이유는 백이와 견주어 더 어렵다."고 하였다.[39] 李象靖(1711-1781)은 〈溪巖先生文集序〉(1772)에서 김령과 백이숙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김령의 행의가 백이숙제보다 더욱 고결하다고 강조한다. '백이의 행적은 우리가 갈 바이지만 처하는 바가 심히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 하고 '백이가 떠난 것은 쉬운 일이나 선생처럼 나아가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고 하였다.[40]

> 백이가 은나라 왕실의 원로로서 주나라에 벼슬하지 않은 절의는 우리들이 따라갈 바이나 심히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계해반정 이후 김령의 처지는 군신 관계에 처함으로써 사태가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후세에 옛일을 의론하는 이는 백이가 떠난 것처럼 하기는 쉽지만, 김령이 나아가지 않은 것처럼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여길 것입니다. 백이처럼 죽는 것은 드러나지만 김령같이 병을 핑계 삼는 것은 숨겨집니다. 백이의 행적은 일월처럼 환히 드러나지만 김령의 뜻은 연못과 바다처럼 깊숙하고, 백이의 기풍은 태산처럼 우뚝하여 우러를 만 하지만 김령의 의열은 송백의 마음처럼 은미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쉬우며 드러나고 숨겨지는 사정에 고금의 다름이 있지만 인을 이루어 백세의 스승이 된 것은 한가지이니 이 분을 東方의 伯夷라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41]

---

38) "鄭桐溪蘊, 歷事昏明, 數直言, 風節動一時, 性亢不苟許人, 至先生常嘖然曰, 子峻樹立如彼, 吾輩不可及, 或曰, 桐溪數訪先生, 咄咄曰, 今上之有我公, 猶武王之有伯夷也, 我見公不覺愧伏, 公必穢我矣云."

39) "盖先生之志, 卽伯夷之心, 而先生之時, 與伯夷之時不同, 其所以自處者比伯夷, 尤有難焉."

40) "然二子. 以殷室遺老, 無委質之義於周, 則叩馬之諫, 采薇之殉, 可以惟吾所適, 而其所處無甚難也." "伯夷之去則易, 而爲先生之不就則難; 爲伯夷之死則顯, 而爲先生之病則隱." "伯夷之行, 昭乎日月, 而先生之志, 深於淵海; 伯夷之風巍乎泰山之可仰, 而先生之烈 隱若松柏之有心. 均之得仁, 而可以爲百世之師, 然難易隱顯之際, 抑有古今之異焉."

41) 李家淳, 〈溪巖金先生請謚疏〉, 『하계집』 권5, "伯夷之殷室遺老, 無委質於周之義,

1813년에 쓴 이가순의 〈계암김선생청시소〉에 나오는 대목으로 이상정의 서문에 나오는 논설을 상당부분 차용하면서 김령을 동방의 백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가순의 청시소는 글의 저술 목적에서 전제되어 있듯이 김령에 대한 증시를 관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는 이 글의 서두에서 '선배들의 정론과 온 나라의 여론을 살펴보건대 백이 이후 2500여 년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한 인물을 얻었으니 김령이 바로 그 사람이다.'[42]라고 하였다. 이가순은 선배 문인들의 의론과 여론을 내세우며 김령을 동방의 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김령은 그 행적이 백이숙제에 비유되어 칭송되다가 이가순에 의해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자로 제시되기에 이른다.

김령과 이가순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사람의 가문이 매우 밀접한 사이임을 알 수 있다. 김령과 이가순의 집안은 모두 거주지가 禮安이며 선대부터 세의가 있었다. 김령의 증조부 때부터 예안에 옮겨 살기 시작했고 이가순은 이황의 9세손이다. 이황은 김령의 증조부와 조부의 碑誌文字를 썼고 김령의 부친 富倫은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김령은 陶山學舍에서 嶺中多士와 從遊하였다.[43]

이상의 문헌 기록을 보면 김령의 생애와 일화 등이 기록으로 전승되면서 불사이군의 지조를 지킨 그의 충절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령이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자로 전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을

可以惟吾所適而無甚難也, 至若坽之於癸亥以後, 則處君臣之際, 事又有至難者焉, 後之尙論者, 以爲爲伯夷之去則易, 而爲坽之不就則難. 爲伯夷之死則顯, 而爲坽之病則隱. 伯夷之行昭乎日月, 而坽之志深於淵海. 伯夷之風巍乎泰山之可仰, 而坽之烈隱若松栢之有心, 難易隱顯之祭, 抑有古今之異, 均之得仁而可以爲百世之師, 斯之謂東方伯夷."

42) 앞의 책, 같은 곳, "臣等竊嘗質之先輩定論, 參以一國輿頌, 而於後伯夷二千五百許年, 始得我仁廟朝一人, 卽故司諫贈都承旨臣金坽是已."

43) 『溪巖集』 권6, 부록, 행장(權愈 · 李光庭撰). 『霞溪集』 권12, 부록, 행장(權璉夏撰). 참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령의 행적과 일화가 시조의 내용 및 창작 배경과 결합될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김령의 동향 후배로 선대부터 밀접한 세의가 있었던 이가순이 김령을 위한 請諡 명분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의 충절을 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삼동에 베옷 입고〉 창작설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격양노인의 『동관식록』 등

1856년에 편찬된 『童觀識錄』이라는 문헌에 〈삼동에 베옷 입고〉의 시조 원문과 한역시가 '天休堂歌詞'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가를 天休堂 李夢奎(1510-1563)로 내세우고 있는데 시조 원문과 한역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三冬에 뵈옷 닙고(一角) 巖下에 눈비 마자(二徵)
> 구름 ᄭᅳᆺ 볏뉘도 쏘인 적 업건마ᄂᆞᆫ(三宮)
> 西山에(四商) ᄒᆡ 디다 ᄒᆞ니 눈믈계워 ᄒᆞ노라(五羽)(ᄭᅳᆺ一作ᄆᆡᆫ非)
>
> 三冬衣布褐　巖下被雨雪
> 雲末寸暉未曾晞
> 西山日云沒　涕淚不勝揮

이 자료는 원문 표기에 곡조를 표시하고 잘못된 말을 바로잡는 등 기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巖穴'이 '巖下'로 되어 있고, '구름 ᄆᆡᆫ'을 '구름 ᄭᅳᆺ'으로 수정한 것 등이 다른 문헌과 다른 점이며, 원문을 충실히 번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노래가 곧 율곡이 이른바 '그 지은 가사는 격조가 높고 뜻이 심원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 곡조를 전하는 것이 많다'고 한 것 중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악부는 지은이의 이름이 없는 것이 많아서 억설들이 전해지고 있다. 혹자

> 는 하서가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뇌연 남문청공이 번역하여 시어를 짓고 하서의 작품으로 제목을 붙였다. 공과 같은 박아한 분도 그 자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노랫말의 뜻을 살피지 못했던 것이다. '三冬布衣, 巖下雨雪, 未見寸暉'라 한 것을 보면 어찌 김문정공이 밝은 임금 만나 벼슬하여 지방을 맡아 다스리다 난세를 만나 절조를 지킨 사실이겠는가? 이는 구태여 많이 변증할 것이 없으니 이를 보는 자는 분명히 그 작자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44)

이 책의 저자는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가가 이몽규라는 사실을 변증하려는 강한 목적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뇌연집』과 『하서집』 부록에는 이 시조의 작가가 김인후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이몽규로 바로잡으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45) 저자는 이몽규 창작설을 입증하기 위해 저자의 집안과 이몽규 집안의 내력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몽규의 증조비가 저자의 선조인 書雲公(趙誼)의 증손녀이며 저자의 선조 昭敏公(趙存性)은 이몽규의 외손인데, 조존성이 명신 반열에 오르도록 한 것은 이몽규의 아들 希參의 힘이라 하고, 조씨와 이씨가 同姓처럼 여기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집안 사람보다 이몽규의 일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어려서부터 〈삼동에 베옷 입고〉가 이몽규의 작품임을 익히 들었다고 하고 『뇌연집』과 『하서집』 부록을 보고는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더욱 깨닫는다면서 '우리 집안의 후손이 어찌 모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46)

---

44) "此歌卽栗翁所稱, 其作歌詞, 格高意遠, 時人多傳其曲者之一也, 而東人樂府多無姓名, 流傳臆說. 或云河西所作, 雷淵南文淸公飜爲詩語, 題以河西, 以公之博雅而未見其子孫, 故未察其詞意也. 觀於三冬布衣, 巖下雨雪, 未見寸暉者, 豈金文正釋褐登瀛, 明良際遇, 百里分憂, 急流自靖之事實也. 此不須多辨, 見此者自當豁然喜得其作者矣. 特未有言此者, 故人多不知耳."

45) 南有容이 〈삼동에 베옷 입고〉를 한역한 작품이 『뇌연집』과 『하서집』 부록에 실려 있는데 다음 항목에서 다룰 것이다.

46) "先生曾祖妣卽我先祖書雲公曾孫女, 我先祖昭敏公爲先生之外孫. 昭敏十歲而先生歿, 而養育我昭敏成就. 我昭敏俾得與於斯文, 終列於名臣者, 先生之胤魯齋先

天休歌曲日西悲　천휴당 가곡에 서산 해를 슬퍼하니,
故是三冬一布衣　삼동에 일개 베옷 입은 선비였네.
何事雷淵南太史　이찌된 일인가, 뇌연공 남태사는,
飜將巖下入東闈　東宮에 든 일을 巖下로 바꾸었나?

'蒙求'라는 항목으로 제시된 작품 3수 중 제1수이다. 변증의 전반적 개요와 내용을 시로써 요약 정리한 것이다. 남유용이 〈삼동에 베옷 입고〉를 김인후의 작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증하고 있는데, 조식, 길재, 김응정, 김령 등의 창작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이 특이하다.

『동관식록』은 小擊壤老人이라 한 趙氏 성을 가진 인물이 1856년에 편찬한 책이다. 책 서두에 실려 있는 서문에 해당하는 글 말미의 '四丙辰孟冬小擊壤老人'이라는 기록에서 이 책의 편찬 시기가 1856년임을 알 수 있다. 또 서문 뒤에 붙인 시를 보면, 편자는 召康節의 擊壤集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小擊壤老人이라 불렀으며 '康節後辛亥' 곧 1791년생임을 알 수 있다.[47] 그리고 '天休堂歌詞條'의 내용을 통하여 편자는 이몽규의 외손인 趙存性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 『동관식록』은 아동에게 일상생활의 의례와 교양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참고서로 서문을 통하여 책의 성격과 편찬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 시정에 유행하는 喪祭禮抄, 簡式類編, 寒暄箚錄, 簡牘精要, 候謝類輯 등은 책이 귀한 집 아동들의 교재로 風敎와 文理에 도움이 되므로 책 내는 사람들이 내용을 뽑아 만든 것인데, 혹 덧보태지고 체재가 어지러워져 내용에 오류가 생겨서 이를 바로잡았다고 하였다. 곧 교육용 책자들에서 잘못된 곳을 발췌하여

生也. 魯齋諱希參字景魯, 與牛栗兩先生爲道義交, 考二集可知, 而其後亦世爲婚姻. 趙李相視如同姓, 知先生之事者莫如吾家. 余自幼少, 習聞此歌之爲李先生作, 及見雷淵集與河西集附錄, 益覺知言之難, 而吾家後人何可不知乎?"

47) 『童觀識錄』, 童觀別錄, 天休堂歌詞, "康節詩名擊壤集, 太平歌樂康衢民. 我生康節後辛亥, 又是太平東國人."

바로잡아 정리한 아동용 생활교양 안내서인 셈이다.[48] 이 책에 첨부된 『童觀別錄』의 '海東樂府'에 있는 '天休堂歌詞'조에 〈삼동에 베옷 입고〉의 원문과 한역시 그리고 작품의 창작 배경 및 작자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이 책의 각 장은 책들에 나오는 잘못된 내용을 보이고 여기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피력한 다음, 이를 종합한 내용의 7언4구시를 '蒙求'라는 제목을 붙여 기록했다.

다음은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자로 제시된 이몽규에 대해 알아보자. 그는 李恒福의 종숙부로 김인후와 동년배이며 중종 때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과업을 폐기하고 처가인 保寧 靑蘿洞에 귀전하여 생을 마쳤다. 李珥(1536-1584)가 행장을 쓰고 金堉(1580-1658)이 『海東名臣錄』에 배열하였는데, 율곡은 그가 죽자 고장 사람들이 노소귀천을 막론하고 집안 상을 당한 것처럼 달려와 곡하며 며칠 씩 떠나지 않았고, 우동주졸도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달을 넘기도록 농가를 부르는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런 내용은 이이의 행장, 김육의 해동명신록, 동관별록의 기록이 대체로 일치한다. 왕조실록과 일성록 등에도 이몽규에게 청직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릴 것을 청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모두 이몽규의 학행과 절의를 높이 칭송하고 있다.[49]

『동관별록』 '천휴당가사'조의 기록 중 이몽규와 조존성 집안의 관계는 『天休堂事蹟』[50]에 실려 있는 古朴齋 趙泰萬의 〈遺事〉에 자세히 기

48) 앞의 책, 序, "喪祭禮抄 簡式類編 寒暄箚錄 簡牘精要 候謝類輯 中國東國古今歷代圖,此皆市上通行之書也. 並歷代圖爲六種, 皆爲無書家童觀之資, 要皆有意於風敎文理, 而偶示童孺未及梳洗者, 輒爲剞劂氏取去. 或被人增添, 亂其體裁, 未免於壁瑕, 要皆非作者之意也.(후략)"

49) 『景宗實錄』, 4년 4월 5일조. 『日省錄』, 순조 20년 9월 14일 · 17일, 고종 11년 5월 25일조.

50) 『天休堂事蹟』은 李珥의 〈行狀〉, 金堉의 『海東名臣錄』 李夢奎조, 趙泰萬의 〈遺事〉, 충청도 유생의 〈請享疏〉, 申尙權의 〈題天休堂狀後〉, 〈墓碣文〉(1777년), 李健命(1663-1722)의 〈書李魯齋家藏知舊簡帖後〉(1693년), 申國顯等의 〈請諡上言〉

록되어 있다. 조태만은 벼슬은 進勇校尉行世第翊衛司侍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생 泰億은 좌의정에 오르고 문형을 맡기도 하였다.[51] 조태만의 고조모는 이몽규의 딸이며, 증조부는 벼슬이 지돈녕부사에 이르고 시조 〈呼兒曲〉을 지은 조존성이다. 고조 擎이 단명하자 당시 19세인 고조모가 증조부를 안고 서울에서 보령의 친정으로 가서 아이를 키운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며 망극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임진란 때도 증조부가 멀리 출정 중이라 이몽규의 아들 희삼의 집에 의탁하여 조부 계원을 낳았다고 하며, 여러 해 동안의 전쟁과 기근에 자기 집안이 온전했던 것은 이몽규의 아들 희삼의 힘이었다고 하였다.[52] 이이는 행장에서 인종이 승하하자 이몽규가 문을 닫아걸고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며 여러 달을 비통해 하다가 시를 지어 슬퍼하였다고 하고 그 시를 소개하였다.[53] 도시를 싫어하여 마침내 과업을 포기하고 귀전하여 소보허유 및 백이숙제의 고사와 도연명의 전원생활을 사모하였다고 하고, 지은 노래가 격조가 높고 뜻이 원대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 곡조를 많이 전했다고 하였다.[54] 申尙權은 1777년에 지은 묘갈명에서 간혹 노래를 지어 그 회포를 부쳤으며 의미가 심원하여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55] 충청도 유생 申國顯 등은 〈請諡上言〉에서 인종이 승하할 때 김인후가 혼절하고 통곡하며 사직하고 귀가하여 有所思, 弔申生辭 등을 지은 것과 이몽규가 시를 지어 슬퍼한 일 등이 일치한다며, 殷나라의

등을 묶어 놓은 책이다.

51) 『楊州趙氏族譜』(奎章閣3758)

52) 趙泰萬 撰, 〈遺事〉, 『天休堂事蹟』 16-27면.

53) "仁廟之昇遐也, 杜門謝客, 仰天搥胸, 悲痛者累月, 作詩傷之, 詩中有曰: '東方一千載, 皇天生舜禹, 朝野共傾歡, 至化期朝暮, 大訃一夕播, 厥疾由哀慕, 御極未踰年, 天意終難曉. 歡心變惻慟, 臣民如喪父, 士生欲何爲, 盛事無由覩."

54) "先生素厭城市, 遂棄科業, 浩然歸田.(중략) 常慕巢許之洗耳, 夷齊之採薇, 元亮之三逕, 有曠世相感之意. 其作歌詞, 格高意遠, 時人多傳其曲."

55) 申尙權, 〈墓碣銘〉, 『天休堂集』 40면, "或作歌詞以寓其懷 而語意深遠 人未易知云"

三仁과 같아서 길은 다르지만 귀의한 곳은 같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김육이 『해동명신록』에 이몽규전을 김인후와 나란히 배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인후는 벼슬하여 은혜를 입었으나 이몽규는 일개 포의로 終身自廢하였고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 계워하노라'라는 노래로 거의 화가 미칠 뻔하였다며 이몽규의 행의가 더욱 어렵고 더욱 고결하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西山日云沒涕淚不勝揮之歌詞'가 곧 〈삼동에 베옷 입고〉를 가리키는 말이다.[56]

이상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이몽규가 〈삼동에 베옷 입고〉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이몽규의 후손들과 향리의 후배 유생들에게 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문의식이 투철한 저자가 〈삼동에 베옷 입고〉를 집안 선조인 이몽규가 지었으며 김인후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변증하여 밝힌 것이다.

4) 기타 문헌

〈삼동에 베옷 입고〉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는 문헌에는 작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작품의 원문 및 작가 표기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冶隱歌」(世傳冶隱聞太祖大王昇遐而作)
三冬衣布衣　岩穴雨雪霑
蔽雲陽旭　　雖無所探

56) 『天休堂集』 52면, 〈請諡上言〉, "文正之寓哀於有所思弔申生等詞, 又與李夢奎作詩以傷之之意脗然相符, 則若兩賢者眞可謂生同志死同傳者也. 夢奎之大節較然與文正一致故也. 然而文正猶有胄筵舊恩, 經幄殊遇, 而夢奎則以一介布衣, 終身自廢, 至以西山日云沒涕淚不勝揮之歌詞, 幾乎禍及, 而以其行狀所云有好善嫉惡之心, 而未嘗露其圭角, 有輕世傷俗之意, 而未嘗言及時事之致, 終得泯然渾然, 若無得以稱焉, 而亦莫或尙之則, 視文正又豈不尤難而愈高者乎?"

西山聞日落 是以傷心

三冬의 뵈옷 입고 岩穴에 눈비 마자
구롬 쓴 볏뉘을 쬔 셰는 업건마는
西山의 히지다 ᄒᆞ니 그를 傷心ᄒᆞ노라[57]

李衡祥(1653-1733)의 『樂學便考』에 들어 있는 자료이다. 『芝嶺錄』에도 들어 있는데 한역시만 있고[58] 『악학편고』에는 한역시가 시조 원문과 함께 실려 있다. 자료의 시조 원문과 한역시를 대조해보면 시조를 충실히 직역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시조 원문이 가집에 전하는 작품과 부분적으로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쬔 적이 업건마는'이 '쬔 셰는 업건마는'으로, '눈물 계워하노라'가 '그를 傷心ᄒᆞ노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이 시조를 吉再(1353-1419)의 작품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다. '冶隱歌'라고 제목을 적고 '야은 길재가 태조대왕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었다고 전한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 저술 연대가 『지령록』은 1706년, 『악학편고』는 1712년에서 1725년 사이로 추정되기 때문에 김천택의 청구영언보다 연대가 앞선 기록이다.

「冶隱歌」(吉再)
吉註書: 金烏山下杜門終.
筮仕辛朝, 托隱冶工.
教授生徒, 斯門有功.
惜乎牛山, 錯比揚雄.
千仞高山, 百世清風.
歌曰 三冬着布衣, 獨居巖穴中.
一番未曝朝陽紅.
西山云日暮, 其恨却无窮.[59]

57) 李衡祥, 〈冶隱歌〉, 『樂學便考』, 甁窩全書9, 791면.
58) 李衡祥, 〈冶隱歌〉, 『芝嶺錄』 6, 甁窩全書8, 775면.
59) 金壽民, 箕東樂府, 제65수, 〈冶隱歌〉(『明隱集』, 보경문화사영인본, 1987.)

金壽民(1734-1811)의 『箕東樂府』에 들어 있는 '冶隱歌'라는 제목의 악부시로 〈삼동에 베옷 입고〉의 노랫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길재가 금오산에 은둔하여 제자를 가르치고 유학에 공을 세운 행적을 기리고, 그가 노래를 지어 불렀다며 〈삼동에 베옷 입고〉의 한역시구를 붙였다. 김수민도 이형상과 같이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가를 길재로 내세우고 있으며, 노랫말도 시조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三冬一布褐　　巖穴受風雪
雲間一寸暉　　不曾晞我褐
忽聞西山白日頹　自然淚落心中哀(右金河西辭)[60]

南有容(1698-1773)의 『雷淵集』에 들어 있는 자료인데 〈삼동에 베옷 입고〉를 한역하고 이를 김인후의 작품으로 기록하고 있다. '밤에 이웃에서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맞춰 新詞를 지었다'는 뜻의 제목 아래 시조 〈靑凉山 六六峯을〉 〈風波에 놀난 沙工〉 〈三冬에 베옷 입고〉 등을 장단구체로 번역하고 각각 '李退溪辭', '朴思菴辭', '金河西辭'라고 작자를 표기하고 있다. 위의 한역시는 『하서집』 부록 권2에도 〈하서사〉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다.

三冬衣短褐　巖穴蒙雨雪
浮雲翳朝曦　陽輝不我晞
忽聞日西落　我心還惻惻[61]

南夏正(1687-1751)이 〈삼동에 베옷 입고〉를 한역한 작품으로 작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작품에는 서문과 같은 성격의 긴 제목이 붙어 있어

60) 南有容, 〈夜聞隣歌倚其聲爲新詞三闋〉 제3수, 『雷淵集』 권8, 雜詩.
61) 南夏正, 〈少郎輩編里巷雜曲累數十章…〉, 『桐巢遺稿』 권2.

한역동기 및 시조에 대한 인식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소년들이 여항의 잡곡을 합하여 수십 장을 엮었다. 내가 병을 다스리며 근심하고 적막한 중에 문득 취하여 열람해보니, 태반이 남녀상열지사로 대개 음란하고 외설스러워, 물리쳐 내버려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비유하고 일으킨 것이 아정하여 시경 시인의 뜻을 져버리지 않은 작품 9장을 겨우 골라서 부연하여 운어를 이루니, 그윽이 고악부의 끼친 뜻에 붙인 것이 9수이다.[62]

젊은이들이 엮은 가집을 열람하고서 男女相悅之詞를 버리고 雅正하여 詩經의 시세계와 같은 작품을 골라 '演成韻語' 곧 부연하여 시어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 三冬衣葛棲岩穴　曾未向陽晒雨雪
> 聞說西山日已昏　不禁涕淚空嗚咽[63]

李用基 編『樂府』(고대본)에 실려 있는 樵夫라 한 인물의 한역시로, 〈삼동에 베옷 입고〉의 내용을 충실히 번역하였다. 이책에는 '악부'라는 제목 아래 시조 한역시 14수가 申緯, 李裕元, 權用正 등의 小樂府와 섞여서 실려있다. 이 작품에는 시조 작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촉의 충신 제갈량이 즐겨 불렀다는 만가 〈梁父吟〉으로 제목을 단 점이 흥미롭다.

이상으로 〈삼동에 베옷 입고〉를 한역시나 악부시 형태로 변환하여 기록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시조 원문 및 작가표기에 관한 전승

---

62) 앞의 책, "少郎輩編里巷雜曲累數十章. 余理病愁寂, 輒取而閱之, 太半是男女相悅之辭, 率淫哇鄙媟, 宜在見放. 其中稍采得比興雅正, 有不背詩人之旨者凡九章, 演成韻語, 窃附於古樂府遺意. 九首."

63) 樵夫, 〈樂府〉(梁父吟),『樂府』(高大本)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 문헌전승의 의미

지금까지 가집류 30여 종과 문집류 10여 종을 대상으로 시조 〈삼동에 베옷 입고〉의 전승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가집류는 각 자료의 시조 원문과 작가 표기 상태를 대조하고, 문집류는 시조 원문 표기, 한역 자료, 작가 변증, 창작 배경 등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와 같은 문헌전승의 종합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작가 표기

각종 문헌에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가로 기록된 인물은 길재, 조식, 양응정, 김인후, 이몽규, 김응정, 김령 등으로 나타났다. 가집류에는 대다수에 이 시조의 작가가 조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일부에는 양응정으로 나오지만 이를 객관적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문집류 문헌자료에서는 조식으로 표기된 예가 확인되지 않았다. 가집에도 작가로만 표기되었을 뿐 창작배경에 관련된 일화는 찾아볼 수 없다. 임금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처사로 생을 마쳤으나 세상과 나라를 걱정했던 그의 행적이 〈삼동에 베옷 입고〉의 내용과 결부되어 어떤 가집에 기록되고 이후 전사되어 전승되는 과정에서 널리 유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응정은 『청구영언』(진본) 등의 가집류에 나오는데, 그의 행적에서 〈삼동에 베옷 입고〉와 연결할 고리를 발견할 수 없다. 김응정은 전라도 강진의 궁벽한 촌야에 은거하여 생을 마친 인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관을 지냈던 양응정으로 바뀐 것이다. 마침내 행적과 명성이 시조

의 내용과 배경에 가까운 조식이 작가로 등장하자, 이후 주로 조식으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집류 문헌에서 길재설의 경우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절의를 지켜 칭송받았던 길재의 행적과 〈삼동에 베옷 입고〉의 내용이 결부되어 길재가 이 시조를 지었다고 알려지고 사대부들 사이에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집 편찬 이전부터 〈삼동에 베옷 입고〉의 길재작설이 전승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인후설은 인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목 놓아 통곡하고 살고 싶지 않은 듯이 하며 발작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소생하여 병을 핑계 삼아 사직하고 귀가하여 인사를 물리치고 다시 벼슬할 마음을 끊었다.'고 한 일화를 비롯한 김인후의 행적과 관련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64] 이몽규설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과업을 폐기하고 귀전하여 생을 마친 인물로 학행과 절의로 칭송을 받았던 이몽규의 행적을 높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 같다. 특히 이몽규의 집안과 혼사로 결합되어 있었던 조씨 가문 인물이 자기 집안에 전해오는 이몽규설을 기록으로 정리한 것이다. 김령설은 인조반정 이후 출사하지 않고 불사이군의 지조를 지킨 김령의 충절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신빙성, 연대, 기록의 상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김응정을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가로 확정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뒤늦게 가집에 기록되고, 이후 반복적으로 전사되었던 가집류 문헌의 작가 표기 숫자를 객관적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많은 경우 구전 과정에서 와전이 빈번하고, 유명인을 작가로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이다.[65] 〈삼동에 베옷 입고〉의 경우도 가

64) 『河西集』 附錄, 권3, 年譜, "先生聞昇遐之報, 失聲號擗, 如不欲生, 殆發心疾, 隕絶乃甦, 遂謝病歸家, 屛棄人事, 不復爲仕進之計."

65) 김수업,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의 지은이에 대하여」, 『배달말』 14, 배달말

집류에는 조식으로 표기된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이를 작가 확정의 객관적 자료로 삼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문집류는 자료의 편집을 비롯한 편찬 절차에 신중을 기했으며, 수록된 자료들은 저자의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고 기록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작가표기의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대상 인물의 생애와 행적, 일화와 명성, 시문 창작, 시대 배경과 역사적 사건 등이 〈삼동에 베옷 입고〉의 내용 및 배경과 쉽게 결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행적이나 일화가 전승되면서 이 시조의 작가로 알려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시조의 작가로 내세워진 인물의 가문의 후손, 향리 후배, 학파나 정파의 후진 등이 선조나 선배의 절의를 드러내기 위해 집안이나 향리, 학파 등에 전승되던 〈삼동에 베옷 입고〉 창작설을 특정 기록으로 정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사대부들의 시조 수용과 전승에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삼동에 베옷 입고〉는 김응정이 지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다양한 문헌자료는 작가 확정 문제와 별개로 해당 시조의 전승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작품 창작 배경

〈삼동에 베옷 입고〉의 창작 배경에 대해서도 혼선이 있다. '서산에 히지다 ᄒᆞ니'의 해석을 두고 이 구절이 임금의 서거를 뜻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임금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시조 관련 논저에서는 仁祖, 中宗, 明宗의 승하 등으로 다르게 풀이하고 있으며, 교양도서와 참고서류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주동 · 유창균은 인조의 서거, 정병욱은 중종의 서거, 김대행

학회, 1989.

은 명종의 승하를 가리킨다고 풀이하였다. 가집류에는 이 시조의 창작 배경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문집류 문헌에는 몇 가지 다른 설이 있다. 『악학편고』에는 길재가 태조의 승하 소식을 듣고 지었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이가순은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김령이 탄식하며 노래 한 곡조를 지었다고 하였다. 인조반정을 이 시조의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신국현 등이 올린 〈청시상언〉에는 인종이 승하할 때 김인후가 통곡하며 사직하고 〈有所思〉 〈弔申生辭〉 등을 지은 것과 이몽규가 '作詩以傷之'한 일이 일치한다고 하고, 이몽규가 일개 포의로 終身自廢하고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 계워하노라"라는 노래로 거의 화가 미칠 뻔하였다고 하였다. 창작 배경이 인종의 승하로 나타난다.

한편 김응정과 관련된 기록에는 모두 명종의 승하 때 지은 것으로 나온다. 김응정의 『해암집』 가곡조에 수록된 시조 원문에는 '聞明廟昇遐作'이라 제목을 달아서 명종 승하시에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권진응의 〈해암집서〉에도 명종이 세상을 떠나자 '西山落日之曲'을 지었다고 하였다. 이몽제, 윤항서 등의 〈도유상방백서〉에는 '가정 정묘(1567)에 명종이 승하하자, 처사가 서산일락가를 지어 슬퍼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봉령은 〈又檻栝懈菴金處士聞明廟昇遐悲歌一闋…〉에서 제목에 김응정이 명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지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작품 서문에서도 '처사는 삭둔의 선영 곁에 집을 짓고 숨어 나오지 않았는데 송강상공이 호남 관찰사로 있을 때 천거하여 정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명종이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노래를 지어 애도하였다'고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상의 기록 등을 통하여 〈삼동에 베옷 입고〉는 향리에 은거하여 처사로 생을 마친 지은이가 당시 임금인 명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지은 작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작품 원문 표기

가집류에 기록된 〈삼동에 베옷 입고〉의 원문 표기에서 의미가 크게 달라질 만큼 현저한 노랫말의 변개는 일어나지 않았다. 문집류 문헌에 수록된 원문 표기에도 심한 변개가 보이지 않는다. 시조의 주제와 창작 배경의 설정, 어휘 선택, 수사기법 등이 전형적이면서도, 표현이 적확하고 의미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의미 전개와 주제 구현이 선명하여 의미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정도로 변개가 일어날 소지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문헌에 전승된 국문 노랫말과 한역시 자료를 대조해보면 원문 표기에 일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동에 베옷 입고〉의 초장 제1구가 진본청구영언본에는 유일하게 '嚴冬에 뵈옷 닙고'로 되어 있는데, 병와가곡집본을 비롯한 가집류와 문집류에 들어 있는 원문자료에는 모두 '三冬에 뵈옷 닙고'로 나오며, 한시 자료에도 모두 '三冬'으로 번역되어 있다. 종장 제2구는 진본청구영언본과 병와가곡집본 등 거의 모든 가집류에 '눈물겨워 ᄒᆞ노라'로 나오는데, 홍비부본에는 유일하게 '못닉 슬허 하노라'로 되어 있다. 문집류에 기록된 원문 표기의 경우 해암집본 〈문명묘승하작〉은 '그를 셜워 ᄒᆞ노라'로, 악학편고본 〈야은가〉는 '그를 傷心ᄒᆞ노라'로 표기되어 있고 동관식록본은 '눈믈계워 ᄒᆞ노라'로 기록되어 있다.

한역시나 악부시 자료를 보면 이형상의 〈야은가〉(西山聞日落, 是以傷心.), 김수민의 〈야은가〉(西山云日暮, 其恨却无窮.), 남하정의 〈少郎輩編里巷雜曲…〉(忽聞日西落, 我心還惻惻.), 이가순의 〈溪巖金先生請諡疏〉(雖然西山景云落, 是以心悲絶.) 등은 '그를 셜워 ᄒᆞ노라'를 번역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남유용의 〈夜聞隣歌…〉(忽聞西山白日頹, 自然淚落心中哀.), 서봉령의 〈檻栝懈菴金處士…〉(西山日落淚堪揮), 윤항서의 〈次徐梅壑…〉(日落西山淚堪揮), 소격양노인의 〈天休堂歌詞〉(西山日云沒,

涕淚不勝揮.), 초부의 〈梁父吟〉(聞說西山日已昏, 不禁涕淚空嗚咽.) 등은 '눈물겨워 ᄒᆞ노라'를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66]

그밖에 병와가곡집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헌에는 중장이 '구름 ᄭᅵᆫ 볏 뉘도 쬔적이 업건마는'인데, 『악학편고』의 〈야은가〉는 '구롬 ᄭᅵᆫ 볏뉘을 뙨 셰는 업건마는'으로 표기되어 방언적 차원의 변개를 보인다.

『동관별록』에는 '구름 ᄭᅳᆺ 볕뉘도 쏘인 적 업건마는'이라 하고, "'구름 ᄭᅳᆺ'은 '구름ᄭᅵᆫ'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잘못이다."고 주석을 붙이고 "雲末寸暉未曾晞"이라 번역하였다. 나름대로 원문 표기와 번역에 신중을 기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구름 낀 볏뉘'의 풀이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주동·유창균, 정병욱, 김대행, 박을수 등은 시조 자료집에서 '뉘'는 '누리', '세상'의 뜻으로 보고 '볏뉘'를 대체로 '햇볕이 쬐이는 세상'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유창돈은 볏뉘의 '뉘'는 '누리'의 축약으로, 여기의 '누리'는 '世上'을 뜻하는 '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놀'을 뜻하는 남도방언인 '누리'로 쓰인 말인 듯하다고 하였다. 또 시조 "인ᄂᆞ니 가ᄂᆞ니 ᄀᆞᆯ와… 비온날 ᄂᆡ믜 ᄎᆞᆫ 누역이 볏귀 본ᄃᆞᆯ 엇더리"의 '볏귀'와 대조하여 단순한 접미사로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67] 이를 한역 자료와 대조해보면 한역자들이 그 뜻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다. 일부 문헌에서는 "蔽雲陽旭, 雖無所探."(이형상), "一番未曝朝陽紅."(김수민), "浮雲翳朝曦, 陽輝不我晞."(남하정) 등과 같이 '蔽雲陽旭', '朝陽', '陽輝' 등으로 번역하였다. 이 때는 '뉘'를 '햇볕'의 뜻으로 옮긴

66) 해암집본 〈聞明廟昇遐作〉의 원문은 '그를 셜워 ᄒᆞ노라'로 표기되어 있고, 김응정의 시조를 번역한 서봉령과 윤항서의 한역은 '눈물겨워 ᄒᆞ노라'에 가깝다. 이들이 시조 원문을 충실히 직역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봉령과 윤항서 등이 접한 시조는 '눈물겨워 ᄒᆞ노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찍부터 '그를 셜워 ᄒᆞ노라'와 '눈물겨워 ᄒᆞ노라'로 변개된 자료들이 전승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67) 유창돈, 『고시조신해』, 동국문화사, 1966, 76-77면.

것이다. 다른 문헌에서는 "漏雲殘照雖未曝, 日落西山淚堪揮."(윤항서), "雲間一寸暉, 不曾晞我褐."(남유용), "雲末寸暉未曾晞"(소격양노인), "觀於三冬布衣, 巖下雨雪, 未見寸暉者, 豈金文正釋褐登瀛, 明良際遇, 百里分憂, 急流自靖之事實也."(이가순)에서와 같이 '漏雲殘照', '雲末寸暉', '雲間一寸暉' 등으로 번역하였다. 이 경우는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치는 햇볕'의 의미로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볕뉘'는 '햇볕이 쬐이는 세상'보다 '햇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는 '잠깐 비치는 햇볕'으로 풀이하는 것이 알맞을 것 같다.[68]

5. 결론

지금까지 시조 〈삼동에 베옷 입고〉의 문헌전승 양상을 가집류와 문집류 문헌에 표기된 관련기록을 망라하여 정리하고 작가 표기, 창작 배경, 원문 표기와 어구 풀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다수의 가집류에 이 시조의 작가가 조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일부에는 양응정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를 객관적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원작자인 김응정이 양응정으로 잘못 기록되고, 양응정에 비해 행적과 명성이 〈삼동에 베옷 입고〉의 내용과 배경에 가까운 조식으로 바뀌어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집류의 경우는 대상 인물의 생애와 행적, 일화와 명성, 시문 창작, 시대 배경과 역사적 사건 등이 〈삼동에 베옷 입고〉의 내용 및 배경과 쉽게 결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행적이나 일화가 전승되면서 이 시조의 작가로 알려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시조의 작가로 내

68) 김용찬은 '햇볕'으로 주석을 달았고,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에서는 '작은 틈을 통하여 잠깐 비치는 햇볕'으로 풀이하였다. 김용찬, 『교주병와가곡집』, 월인, 2001, 94면.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1.

세워진 인물의 가문 후손, 향리 후배, 학파나 정파의 후진 등이 선조나 선배의 절의를 드러내기 위해 집안이나 향리, 학파 등에 전승되던 〈삼동에 베옷 입고〉 창작설을 특정 기록으로 정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사대부들의 시조 수용과 전승에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조 〈삼동에 베옷 입고〉와 관련된 기록이 들어 있는 다양한 문헌자료의 전승은 사대부들의 시조 수용과 전승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헌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동에 베옷 입고〉를 김응정이 지었음을 재학인 하였지만 길재, 조식, 김인후, 김령, 이몽규 등이 작가로 표기된 문헌자료도 시조의 수용과 전승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작품 원문 표기는 일단 해암집본을 정본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집류와 문집류에 수록된 원문 표기를 대조해본 결과 원문 표기에 의미가 달라질 정도의 변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장 말구가 '그를 셜워 ᄒᆞ노라'와 '눈물계워 하노라'의 두 가지 전승이 있었고 어휘에 '삼동애' / '엄동에', '암혈에' / '암하에', '구름 낀' / '구름 끝'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서산에 히지다 하니' 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작품의 창작 배경에 대해서는 김응정이 명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지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볏뉘'는 '햇볕', 또는 '구름 낀 틈 사이로 잠깐 비치는 햇볕'으로 풀이하였다.

〈삼동에 베옷 입고〉의 작가가 김응정이라는 주장은 이미 20여 년 전에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술논저를 비롯하여 각종 교양도서와 교육현장의 학습자료 등에서 여전히 작가 표기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작가 표기에 시비가 있는 작품이라고 하여 교과서에 싣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교재편찬 방침이라 할 수 없다. 〈삼동에 베옷 입고〉와 관련된 가집류와 문집류 문

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가와 작품 원문 표기 및 창작 배경 등을 다시 확인한 만큼 학술논저는 물론이고 교과서와 학습서 및 교양 도서 등에서의 혼선이 바로잡아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懈庵集』『溪巖集』『雷淵集』『桐巢遺稿』『梅壑先生遺稿』『童觀識錄』『霞溪集』『天休堂行蹟』『고대본樂府』『樂學便考』『芝嶺錄』
정주동 · 유창균 교주, 『진본청구영언』, 1957.
유창돈, 『고시조신해』, 동국문화사, 1966.
정병욱,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66.
심재완,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심재완, 『정본시조대전』, 일조각, 1984.
한국시조학회,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1.
김대행, 『시조』Ⅰ, 『한국고전문학전집』 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김용찬, 『교주병와가곡집』, 월인, 2001.
전광현, 「김응정의 시조」, 『서림』 2, 전북대문리과대학생회, 1972.
진동혁, 「김응정시조연구」, 『국어국문학』 90, 국어국문학회, 1983.
이동영, 「조남명 시조의 작자존의」, 『태야최동원선생화갑기념국문학논총』, 삼영사, 1983.
진동혁, 「김해암가곡집서등에 관하여」, 『김일근박사회갑기념논문집』, 1985.
진동혁, 「김해암가곡집서등에 관하여」, 『건국어문학』 9 · 10,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85.
김수업,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의 지은이에 대하여」, 『배달말』 14, 배달말학회, 1989.
김일근, 「조남명의 국문시가에 대한 심층연구」, 『남명학연구논총』 7, 남명학연구원, 1999.

〈Abstract〉

A study about literary traditional aspects of Korean verse, 'In hemp clothes in winter'

Kim Myoung-Sun

One of the famous Korean verses, Sijo 'In hemp clothes in winter (삼동에 베옷 입고)' is in thirty kinds of anthologies and ten kinds of Chinese writings. The major point in literary transmission of this work was the writer. The writer of this verse is Cho Sik(조식) in most anthologies. The writer of this work is recorded as Kil Jae(길재), Kim In-hoo(김인후), Kim Eung-jung(김응정), Lee Mong-gyu(이몽규) or Kim Ryung(김령) in Chinese writings.

These people were famous for their studies and virtue, but they did not take office and retired from the world until they die. They were faithful to their principles serving their kings, though the country had wanted them to take a position in the government. Even though they did not in government service, they left some anecdotes and stories of lamentation after hearing their king's death. Because these stories and anecdotes can be easily connected with 'In hemp clothes in winter' which is about mourning over death of a king, they were known as the writer of this poem. Especially, their offsprings, juniors and followers often wrote these people as the writer of this work to represent their honor.

Throughout the studies of several literary documents, this poem is

written by Kim Eung-Jung, who lived in Kangjin(강진) in Jeonla province(전라도) and did not take office in all his life. He made this poem when he had heard the King Myoungjong(명종)'s death. Various transmission of literary documents with the records about "In hemp clothes in winter" have a significance that can show the aspects of noble men's acceptance and transmission of Sijo.

Keywords : Korean verse, "In hemp clothes in winter", literary transmission, Kim Eung-Jung, "Haeamjip"

논문투고일 : 2005년 11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6년 1월 7일